
LEE BUL SOLO EXHIBITION

January 12 – February 11, 2017
Lehmann Maupin | 536 W 22nd Street

글 | 심민정, 아트모라 큐레이터 프로그램



Lee Bul
Installation view, Lehmann Maupin, 536 West
22nd Street, New York
January 12-February 11, 2017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불의 전시가 뉴욕 첼시의 리만머핀 *Lehmann Maupin* 에서 2017 년 2 월 11 일까지 열린다. 갤러리 대표인 데이비드 머핀 *David Maupin* 과 레이철 리먼 *Rachel Lehmann* 은 제프 쿤스 *Jeff Koons*,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등 현재 최고의 스타작가들을 그들의 젊은 시절 발굴해 키워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은 그들은 국내 작가 서도호와 이불을 미국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이불의 전시는 리만 머핀에서 열리는 다섯 째 전시이며 콜라주부터 조각품까지 다양한 조형물 14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시장을 안내하는 듯한 거울 터널, *Souterrain* 을 만나게 된다. 시각적 구조에 대한 이불의 끝없는 탐구를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실재라고 알아 온 모든 관념에 대해 회의해 볼 것' 이라고 요구한 플라톤의 동굴과 같은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거울 파편으로 이루어진 동굴 내부에서 다각도로 배치된 전면의 거울을 통해 자신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사방에 붙여져 있는 거울들로 인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매 순간 확인 가능하다. 이 미로같은 이질적인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거울 속 낯선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익숙한 자신에 대한 재조명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인 또한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분명 동굴 혹은 터널의 입구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익숙한 듯 낯선 모습에 누군가 먼저 *Souterrain*의 입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로 망설였다. 동굴 양옆으로는 비즈로 만든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전시장으로 안내하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였다. 어느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입구에 들어선 순간 자연스럽게 출구를 생각하게 되는 구조였지만 막상 들어가 자신이 비친 수많은 거울을 마주하니 순간, 나가는 곳을 망각하고 그저 거울동굴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본인의 작업을 이해하기보다는 경험하길 바란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미술관이 우리에게 ‘손대지 마시오’를 말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미술을 경험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outerrain*은 이성적인 잣대로 작업의 의미를 찾아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작업을 겪고, 자신에게 맞는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해보거나 강렬한 경험 그 자체로 남겨두길 바라는 이불의 속내가 잘 드러나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졌다. 목적도 그 의미도 복합적인 현대사회 안에서 현대미술 또한 이해하고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강렬히 경험하는 것으로써 가치를 두면 어떨까?

이불 (b. 1964)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한 이불 작가는 1980년대 말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다양한 퍼포먼스와 설치, 오브제 작업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 상품화 등을 비판하며 주목 받았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과장된 신체와 괴물 형태의 조형물을 이용한 사이보그 시리즈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 *MoMA* 초대전에서는 *Majestic Splendor*을 선보이며 날 생선의 썩어 가는 냄새를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시도로 세계 미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에 이어 프랑스 퐁피두아트센터 등 주요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었다.